

기고

10대들의 마약, 남 일이 아닙니다

고효범 강진경찰서 수사팀 순경



“피자보다 싼 마약값,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지는 중” 최근들어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마약약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합성 마약의 약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로 알려진 펜타닐을 비롯한 다른 신종 합성 마약들을 쉽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펜타닐(Fentanyl)은 일반적으로 진통제로 사용되지만, 최근에는 마약 등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펜타닐은 헤로인의 100배, 모르핀의 200배 이상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접촉만 하더라도 효과가 빨리 발현되고 호흡곤란, 근육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이는 일반적인 마약과는 달리, 중독성과 사망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마약을 구매하는 것도 쉽고, 인터넷 상에서 마약 판매 사이트를 쉽게 찾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셜 미디어나 메신저 등을 통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마약 악용은 개인의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큼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교육과 예방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학교나 가정, 사회단체에서 청소년들에게 마약 악용의 위험성을 설명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적 제재나 사회적 제재도 필요합니다. 마약 판매, 운반, 사용 등은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제재와 함께 사회적 제재도 필요합니다. 청소년들이 마약 악용을 하면, 친구, 가족, 학교, 사회 등에서 거부감을 느끼고, 마약 악용을 하지 않는 것이 적극적으로 지지되어야 합니다.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 ▲아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 ▲응급질병상담 1399
- ▲미아·가출인신고 182
- ▲여성 긴급전화 1366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응급의료센터 1399
- ▲기상예보 131
- ▲법률구조상담 132
-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 ▲광주남성의전화 673-9001
- ▲광주여성의전화 363-7739
- ▲수도고장신고 121
- ▲전기고장신고 123
- ▲가스사고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최정현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욱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적용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영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좋은 인연을 맺고 살자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인연(因緣)이란 사전적 의미로 풀이하면 인(因)은 결과를 생기게 하는 내적인 직접 원인이며, 연(緣)은 직접 원인을 돕는 간접적인 원인이다. 말하자면 인연이란 모든 현상의 직접적인 원인과 간접적인 원인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말로서, 특히 인연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최고 교설인 연기(緣起) 사상과 통하고 있다.

불가에서는 인간의 만남은 전생에 어떤 인연에서 비롯된다고 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인연을 만나게 된다.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되면 서로가 편안하고 유익하지만, 나쁜 인연을 만나게 되면 서로 간에 짜증과 분노가 치밀게 되고 급기야는 서로가 파멸의 길로 치달을 수도 있다. 부부간에도 악연이 만나게 되면 서로가 싸우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원수처럼 지내게 된다. 반면에 선한 인연으로 만나 부부 연을 맺게 되면 서로가 이해하고, 아껴주고, 사랑하며 걱정해 주는 다정한 사이가 되는 것이다.

인생은 나와 나의 만남 인연이다. 선연(善緣)이든지 악연(惡緣)이든지 항상 서로가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자체가 인생이다. 산다는 것은 인연을 맺는 것이다. 부모, 애인, 아내, 자식, 친척, 친구, 스승, 제자, 선후배, 이웃 그 외에도 많은 사람과의 만남이 곧 인연이다. 이처럼 많은 만남 중에서 진실한 만남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니다.

평생 몇 번의 운명적으로 만날 뿐이다. 그렇다면 좋은 인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는 깊은 만남을 갖는 인연이 있다. 혼과 혼, 마음과 마음, 생명과 생명, 인격과 인격이 서로 포용하는 깊은 만남이 중요하다. 일시적이고 단편적이고 피상적인 만남은 큰 의미가 없다.

나와 부처님과의 만남은 깊은 만남이요. 반면 길을 가다가 누가 방향을 묻는다든지 가게에서 물건을 사면서 주인과 얼굴을 마주하는 식의 만남은 일시적인 만남이다. 사람들은 흔히 이와 같은 일시적인 만남에 대해 너무나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경향을 종종 본다. 예를 들어 남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열심히 화장하고, 좋은 옷을 입고, 머리를 손질하고 몸매를 가꾸는 등에 많은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행위에 몰두한

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둘째로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인연이 있다. 서로 만남으로써 자신도 진실해지고 상대방도 진실해져 함께 빛과 힘을 얻는 경우이다. 이러한 만남 속에는 진솔한 감격이 있고, 정신적인 의지처가 있고, 삶의 보람이 있다. 하지만, 세상에는 서로를 증오하는 파괴적인 만남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옛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도 있다. 이렇듯 상대방의 잘못된 모습을 보고 좋아하는 인연이 많다면 얼마나 불행한 만남인가? 과연 내 주위에는 선한 인연이 많은가? 악한 인연이 많은가? 깊이 생각해 보고 선한 인연이 많아지도록 노력해야겠다.

셋째로는 행복한 인연이다. 퇴계와 율곡의 만남,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만남, 예수와 베드로의 만남 이러한 만남에는 영혼의 교류가 일어나고 정신적인 충족감이 생기며, 종교의 혁명이 일어나고 학문과 예술의 꽃이 핀다. 이것이 지극히 행복한 만남이다. 이러한 인연이 인간의 정신을 새롭게 하고 삶의 차원을 더 높여가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인생의 넓은 광장에서 될 수 있으면 깊은 만남 창조적인 만남, 행복한 만남이 많아지도록 노력해야겠다. “너와 나의 만남은 전생에 깊은 인연이 있었기에 나의 운명에 큰 이로움을 주었고, 다시 또 이 세상에 태어난다 해도 나는 꼭 너와의 만남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심정이 되어야 한다.

너는 전생에서 나의 아내였는가? 애인이었는가? 아들이었는가? 제자였는가? 친구였는가?

이처럼 깊은 만남, 우리는 이러한 만남을 가져야 한다. 만남 그리고 인연이란 말은 참으로 운치 있는 말이다. 너와 나와와 성실한 만남 속에서 인생의 행복함을 찾을 수 있다. 성실한 너와 내가 성실한 자리에서 성실한 만남을 가질 때 우리의 만남은 정말 깊고, 행복하고, 창조적인 만남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좋은 인연을 맺어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며 노력이다.

기고

불법 마약류 판매 광고, 제도적으로 차단해야!

박원영 광양경찰서 경무계 순경



이는 인터넷 접근이 가장 활발한 이 시점에서 불법 마약류를 거래하는 이들이 이를 악용한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다름과 같이 마약류를 정의하고 있다. (▲의존성 - 마약류는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 ▲내성-사용하는 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금단현상 - 이를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

이 따르며,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

마약류는 한사람의 인생과 가정을 파탄낼 수 있는 약물이고, 그 가족과 주변 지인들의 삶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서운 약물이고 호기심을 가져서도 안되는 약물이다. 이런 위험한 약물이 인터넷을 통해 누구든지 접할 수 있다면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 마약 판매라는 단어가 검색되어도 차단 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나라 국민 95%가 스마트폰을 사용한다는 글을 보았다. 확실히 주변 지인들 중에서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차가운 정말 어렵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현재, 인터넷에 대한 접근이 그 어느 시점보다도 활발하다.

최근에는 어린이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여러 정보를 접할 수 있다. 이렇게 정보를 접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

인터넷을 통해 삶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식을 접할 수도 있지만 인생을 위태롭게 하는 나쁜 지식을 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나쁜 지식 중 하나가 바로 불법 마약류 판매 광고에 관한 글이다. 과거에는 일반이 불법 마약류를 접하기 쉽지 않았지만 스마트폰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청소년까지도 불법 마약류를 접하기가 수월해졌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견뎌낼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